#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14주. 정약용의 가족 사랑 1차시 하피첩에 실어보낸 사랑

#### 학습목표

- 1. 정약용 생애와 그 가족사를 이해한다.
- 2. 정약용의 가족애 모습을 이해한다.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김기림 교수



#### 편지로 가족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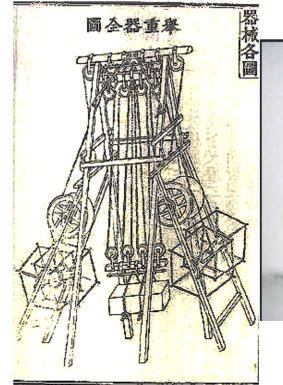
호는 다산. 여유당 . 1762년 마현 태생 아버지 정재원. 어머니

- 1776년(15세) 이익의 학문 접함.
- 1783년(22세) 진사 합격. 성균관에서 공부 정조와 만나 깊은 인상을 줌.
- 1789년 문과 급제. 정조의 총애. 배다리 준공
- 1793년 수원성 설계. 천주교에 관심
- 1801년 천주교 때문에 유배.1818년까지.
  장기로 유배. 백서사건으로 강진 유배
  저작 활동.
- 1818년(57세) 유배 풀림.. 두물머리로 귀향 문집 여유당전서 편찬
- 1836년 생애 마감.





수묵화가인 김호석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가 새로 그린 다산 정약용 초상화(왼쪽) 돋보기를 쓴 모습이 이채롭다. 오른쪽은 고 장우성 화백이 그린 기존 영정의 복제 품으로 전남 강진군 다산기념관에 있다. 사진 제공 강진군





# ♡ 정약용은 누구인가?



실학자 이건필 〈두강승유도〉



결재정선 〈독백탄〉

## ♡ 정약용의 작품들





다산후학방원인필의(茶山後學倣元人筆意)라고 쓴 제발문처럼 중국 원나라 화가의 작품을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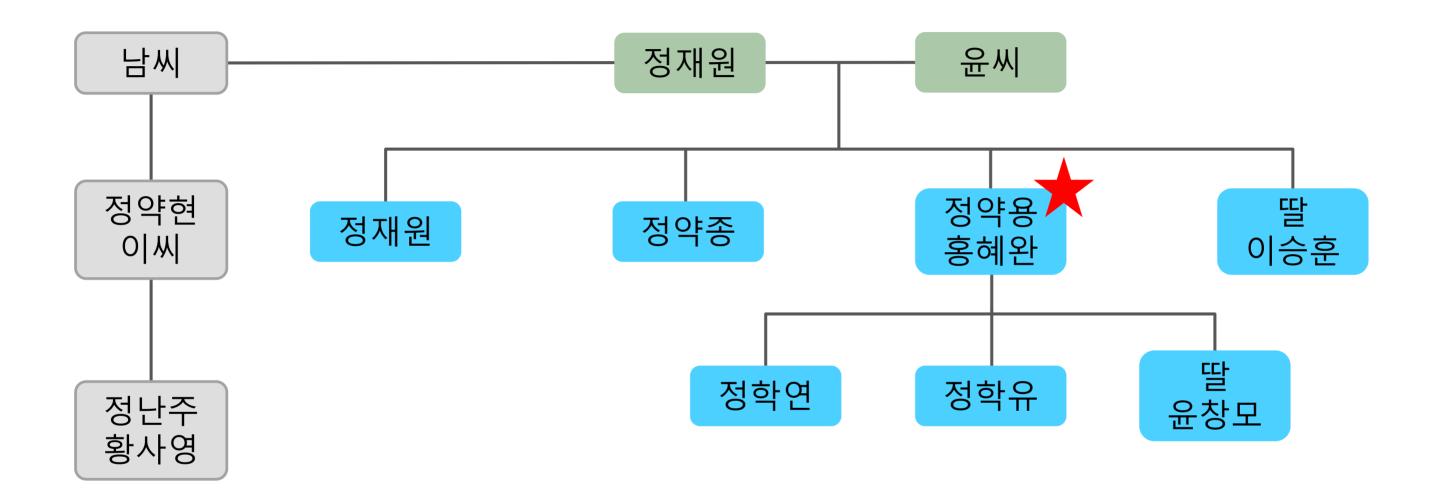
서강대박물관에 소장된 이 <산수도>는 정약용의 작품으로 전한다.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 화성능행도 8폭 병풍 중 '한강주교도(漢江舟橋圖)'. 정약용 은 왕명으로 1789년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설계.

## △ 정약용 가계도



### ○ 큰형수 -더 없이 큰사람

#### 형수 묘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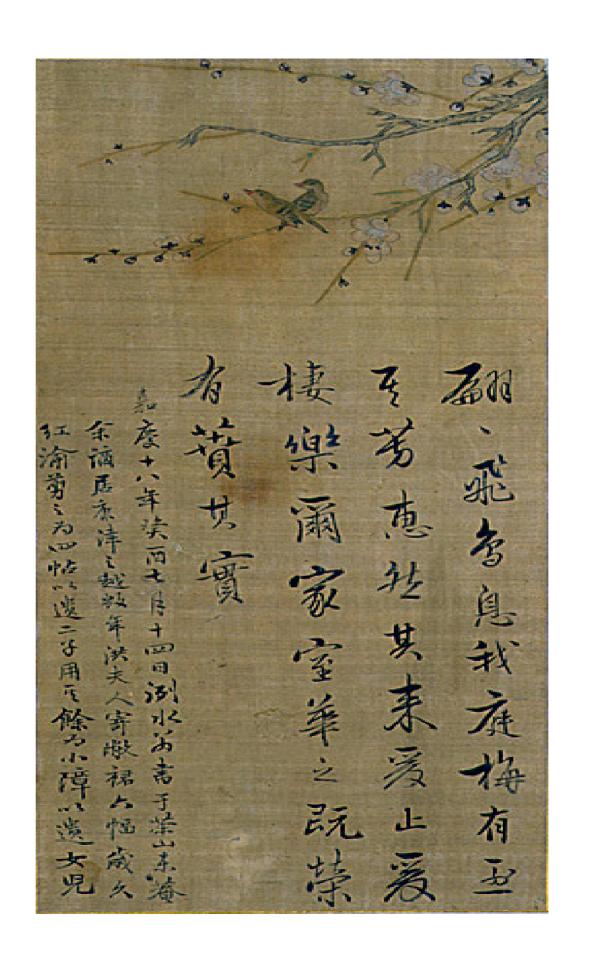
시어머니 섬기기 쉽지 않았지 계모 시어머니는 더 어려웠네 시아버지 섬기기 쉽지 않은데 아내 없는 시아버지는 더 어려워 시동생 보살피기 쉽지 않은데 어머니 없는 시동생은 더 어렵네 이 모든 일 유감없이 잘했으니 이야말로 형수의 너그러움이었네

정약현 부인, 황사영 장모였던 맏형수에 대한 고마움, 존경



#### 매조도(梅鳥圖)

훨훨 새 한마리 날아와 뜨락 매화나무에 앉으니 진한 그 매화향기에 끌려 사랑스레 찾아왔도다. 이곳에 머물고 둥지틀어 즐겁게 살자꾸나 꽃피어 만발했으니 열매도 또한 풍성하리. 翩翩飛鳥 息我庭梅 有烈其芳 惠然其來 奚止奚棲 樂爾家室 華之旣榮 有賁有實



### 🔎 하피첩에 부정(父情)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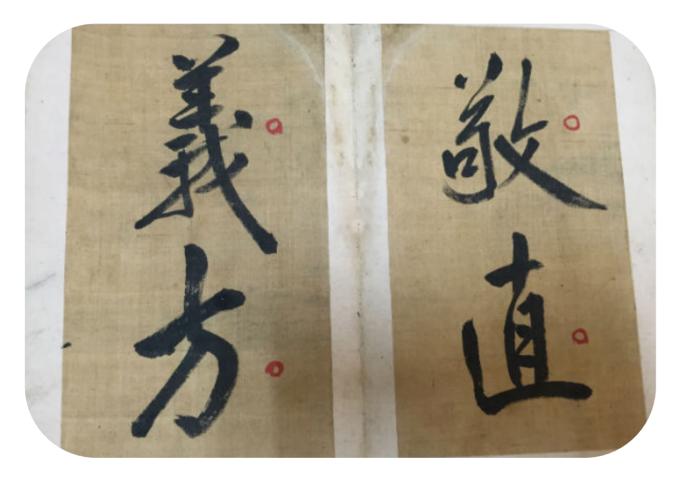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을 적에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 다섯 폭을 보내왔는데, 그것은 시집을 때의 예복으로 붉은빛은 흐려지고 노란빛은 옅어져 글씨 쓰는 바탕으로 알맞았다. 이것을 잘라서 조그만 첩(帖)을 만들고, 손이 가는 대로 훈계하는 말을 써서 두아이에게 준다. 훗날 이 글을 보고 감회를 일으켜 두 어버이의 흔적과 손때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그리는 감정이 뭉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하피첩(霞帔帖)'이라고 이름지었는데, 이는 곧 '붉은 치마'를 달리 표현한 말이다. 가경(嘉慶) 경오년(1810, 순조 10) 7월에 다산(茶山)의 동암(東菴)에서 쓰다. 탁옹

### 🔎 하피첩에 부정(父情)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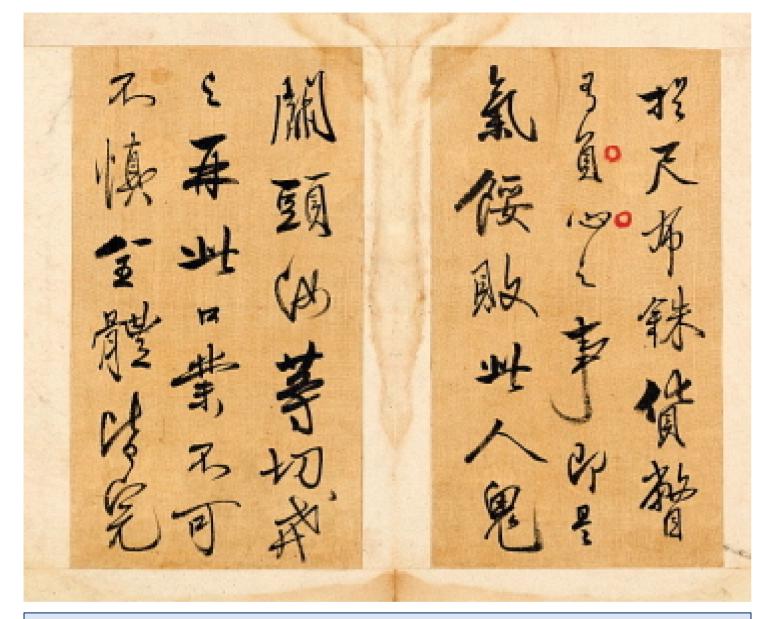


경직-공경함과 곧음 의방-의로움과 반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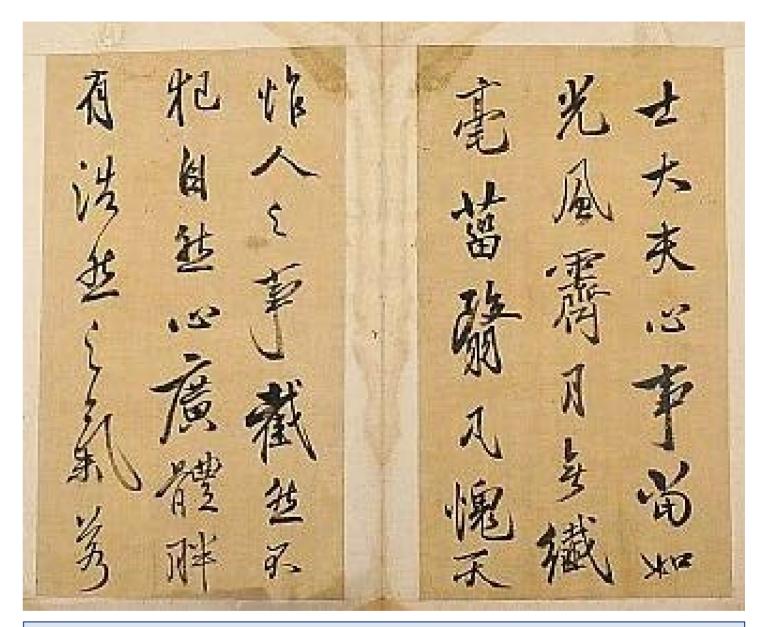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다. 그것만으로 효제가 두텁다고 할 수 없다. 큰아버지,작은아버지가 형제의 자식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형제의 자식들은 백부,숙부를 친부모같이 여겨야 한다.

## 🔎 하피첩에 부정(父情) 담아



만약 포목 몇 자, 동전 몇 닢 때문에 잠시라도 양심을 저버리면 곧바로 호연지기가 썩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되느냐 도깨비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이 된다. 너희들은 각별히 이를 경계하여라



사대부 마음은 비 그친 뒤 부는 시원한 바람, 밝은 달처럼 털끝만큼도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늘에 부끄럽거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절대 하지 않으면, 마음도 자연 스럽게 넓어질 것이다.